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해 8700명 함께 달렸다

롯데 '2019 슈퍼블루마라톤 대회' 개최

롯데는 지난 5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함께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2019 슈퍼블루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는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및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지난 2014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슈퍼블루(Super Blue) 캠페인'의 선포식을 가졌다. 슈퍼블루 캠페인은 코발트 블루의 운동화끈을 상징물로 하는데 푸른색은 희망을, 운동화끈은 스스로 신발을 묶고 일어나겠다는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뜻한다.

'슈퍼블루마라톤'은 '슈퍼블루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취



롯데가 지난 5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2019 슈퍼블루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롯데지주

지에서 기획돼 올해로 5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사장), 고흥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및 가족 1100여명을 비롯해 총 8700여명이 참가

했다. 참가자들은 슈퍼블루(장애인 코스), 5km, 10km, 하프 등 4개 코스를 달렸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2600여명의 롯데 임직원도 함께 달리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삼성전자 '세상모든가족함께' 행사 후원

삼성전자가 6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세상모든가족함께 바다 나들이' 행사에 후원기업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 등이 함께했다.

캠페인은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인식 확산과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자체에 기부 체납한 '청소년 자립지원센터'를 소개하고 결혼이주여성 자립을 돕는 '핸즈온 키트체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위탁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를 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들이 성금을 마련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왔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광주와 구미 등에 추가로 센터를 건립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청소년자립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며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취업해 자립하게 된 정모씨는 "센터를 통해 가장 힘들었던 주기가 해결되고 국가자격증 취득에 취업까지 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재용 기자 juk@

올해도 불수능?



기지수첩

한용수 (정책사회부)

올해 수능도 전년에 이어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 학원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출제경향과 난이도 조정을 위해 두 차례 치르는 6월, 9월 모의평가 모두 지난해 역대급 불수능 기조를 유지해 어렵게 출제될 데 따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능까지 약 2개월 남은 상황이다보니 단기간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들의 강좌도 성업 중이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수록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학원으로 몰려드는 학생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의 경우 상대평가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이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전환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도 포함됐지만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등 수능 주요 영역이 상대평가인 현수능 체제에서 수능 난이도는 매우 중요하다. 상·중·하위권별 수능 난이도에 따른 유풍리가 극명해 이에 따른 학습전략이 자신의 최종 점수에 주는 영향이 크고, 사교육 유발 효과도 크다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이에 따라 수능 난이도에 대한 출제기관의 보다 명확한 해설이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하지만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해 평가원 측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만 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해 불수능 논란에 대해 '수능 검토위원회의 예측 능력이 미흡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야기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능 난이도에 대한 평가원의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나 친절한 설명을 요구하는게 지나친 일인지 묻고 싶다.

/*h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7일 (음 9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48년생 좀 부족하나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60년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준다. 72년생 피곤이 쉬 풀리지 않는 날. 84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이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 소** 3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낭비. 49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 61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73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85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 호랑이** 38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50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 62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둘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74년생 패망한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 86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듯하나 자중할 때.
- 토끼** 39년생 바람이 마음을 흔들어 대니 갈등. 51년생 자식자랑에 입에 침이 마른다. 63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착각. 75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불면 날아가 버린다. 87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 말** 40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52년생 손톱에 못단배 가듯이 손조롭다. 64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76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88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빠른 결정이 필요.
- 뱀** 41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 날. 53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65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77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89년생 스스로를 응원하라.

- 말** 42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54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66년생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 78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음을 명심. 90년생 미흡하다고 느끼면 바로 중지.
- 양** 43년생 돌을 얻기 위해 하나는 양보. 55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67년생 결과도 중요하나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79년생 벌을 두려워하고서는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91년생 일단 새로운 일에 도전.
- 원숭이** 4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56년생 때로는 깔끔한 포기 가득이 된다. 68년생 거울은 절대 먼저 씻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라. 80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92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
- 닭** 4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57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69년생 아랫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81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 93년생 당신의 인생이니 공부하라.
- 개** 46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내일. 58년생 배우자가 나의 가장 큰 조력자. 70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돌아 다녀본들 무슨 소용. 82년생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신경 쓰라. 94년생 주변의 마음을 읽지 못해 외롭다.
- 돼지** 47년생 재산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59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71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지부지. 83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 95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라.



김상희의四季 공무원이 아니어도

"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붙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아들의 시험문제에 자신하는 이유가 있었다. 사주에 천관귀인이 있다는 것이다. 짚어보니 천관귀인이 들어있는 사주는 맞다. 천관귀인은 아름다운 길성(吉星)중의 하나이다. 관직에 진출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운세를 보여준다. 천관귀인은 관직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일해도 두각을 나타내고 남보다 앞서가는 운세를 만들어 준다. 그런데 사주를 짚어보니 다른 부분이 걸렸다. "본인 의사는 어떤가요?"하고 물어보니 생각 밖의 대답이 나왔다.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무조건 시험을 보라고 했었다. 아들은 책상에 붙어 앉아 주어진 일을 하는 공무원이 어울리지 않는 사주이다. 운세가 역동적이어서 모험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며 도전적인 일을 원하는 성정이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앞길을 강요하는 건 가족 간에 불화를 만들 수도 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게 좋다. 생긴 대로라는 표현은 나쁜 말이 아니다. 자기가 타고난 성정 그대로 살아가는 게 더 즐겁고 유익하다는 순수한 뜻이다. 팔자에 타고난 성정을 무시하고 거꾸로 살면 언젠가 역작용이 생긴다. 아들은 천관귀인이라는 좋은 팔자를 지니고 있다. 관직에 나가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큰 성취를 이루는 운세가 있는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른다면 요즘 가장 인기라는 공무원만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에게 본인의 뜻에 맡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팔자의 분석을 신뢰하란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자신의 신념을 믿으라는 얘기이다. 사람의 일을 억지로 꾸미면 언젠가는 탈이 난다.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를 바탕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면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8 | |
| | | 7 | 8 | | | | 9 | 2 |
| 1 | | | | 9 | | | 3 | |
| 3 | | | 4 | 7 | | | 8 | |
| | | 4 | 7 | | 9 | | | |
| | | | | 3 | 8 | 5 | 4 | |
| | 5 | | 6 | | 4 | | | 9 |
| 8 | | 3 | | | 1 | | | |
| | 2 | | | | | | 6 | |

| | | | | | | | | |
|---|---|---|---|---|---|---|---|---|
| 9 | | | | 4 | | | 5 | |
| | | 4 | | | | | 1 | |
| | 1 | | 8 | | | | 3 | 6 |
| | | | 1 | | | 2 | 6 | |
| 3 | | | | 5 | | | | 7 |
| | | | 2 | 1 | | | 4 | |
| 2 | | 6 | | | 7 | | | 5 |
| | 3 | | | | | | 8 | |
| | | 8 | | 1 | | | | 4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8 | 1 | 9 | 5 | 2 | 4 | 6 | 3 | 7 |
| 5 | 2 | 7 | 1 | 3 | 6 | 8 | 9 | 4 |
| 6 | 3 | 8 | 7 | 9 | 1 | 5 | 2 | 4 |
| 1 | 7 | 5 | 8 | 6 | 9 | 4 | 3 | 2 |
| 9 | 2 | 6 | 5 | 2 | 7 | 8 | 1 | 3 |
| 2 | 6 | 8 | 9 | 7 | 1 | 5 | 4 | 3 |
| 9 | 4 | 1 | 2 | 6 | 7 | 8 | 1 | 5 |
| 2 | 5 | 6 | 8 | 1 | 8 | 2 | 7 | 9 |
| 7 | 8 | 1 | 2 | 9 | 5 | 3 | 6 | 4 |
| 7 | 8 | 2 | 9 | 1 | 3 | 8 | 6 | 5 |
| 2 | 9 | 8 | 7 | 6 | 5 | 2 | 1 | 4 |
| 1 | 5 | 6 | 2 | 8 | 9 | 7 | 4 | 3 |
| 5 | 6 | 7 | 9 | 1 | 2 | 3 | 4 | 8 |
| 2 | 1 | 8 | 5 | 7 | 6 | 9 | 4 | 3 |
| 8 | 9 | 2 | 1 | 6 | 1 | 5 | 1 | 2 |
| 9 | 7 | 4 | 6 | 2 | 8 | 5 | 1 | 3 |
| 6 | 1 | 2 | 5 | 4 | 2 | 7 | 8 | 9 |
| 8 | 2 | 5 | 1 | 7 | 9 | 4 | 2 | 6 |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99호